

예비청소년지도사의 청소년 관련 봉사활동 경험 탐색

조발그니*·류정희**·김은지***

초 록

이 연구는 예비청소년지도사들이 청소년 관련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관련 학과 대학생 1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봉사활동 경험의 유형을 탐색하였다.

예비청소년지도사들은 청소년 관련 봉사활동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였다. 첫째, 셀프리더십의 형성이다. 예비청소년지도사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 운영,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성취 경험을 통해 다른 대학생들과 함께 동아리를 조직하기도 하고, 다른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동기부여를 하였다. 둘째, 관계형성을 하는 기회가 되었다. 예비청소년지도사들은 교수, 기관관리자들의 추천을 계기로 봉사활동을 시작하기도 하였으며, 선후배, 동료들 간의 관계 유지를 통해 봉사활동을 지속하였다. 셋째,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비청소년지도사들에게 봉사활동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청소년지도사로서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적성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 연구 참여 대학생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청소년지도사의 일이 무엇인지 '간파'하고 그 일에 대한 '제한'을 체험했다. 예비청소년지도사들은 대학에서 배우지 못한 청소년지도사의 현실을 간파하고 지위에 따른 일의 한계를 인식하는 '제한'을 알게 되었다. 다섯째, 연구참여자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현장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 경험은 이들에게 현장 실무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청소년의 문화와 심리를 파악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이 연구는 청소년지도사를 양성하는 대학 혹은 기관의 훈련 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예비청소년지도사, 청소년관련봉사, 청소년활동, 현장 경험, 전공관련활동

* 주저자: 목포가톨릭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조교수, vincentcho@naver.com

** 교신저자: 광주대학교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 조교수, teodosia@naver.com

*** 공동저자: 목포해양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연구원, 9537768@naver.com

I. 서론

청소년 시기에 자아정체성 형성은 중요한 발달과업이다. 이 시기에 청소년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사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역할을 결정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진로를 정하게 된다(조발그니, 2019). 이와 같은 이유로 청소년 시기에 멘토의 역할이 강조되며, 다양한 활동을 장려한다. 과거에는 부모와 교사가 청소년의 멘토로서 역할을 했지만 급변하는 사회에서 부모와 교사의 역할은 감소하고 청소년 주변에 모델이 될만한 이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멘토의 구실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청소년지도사가 주목 받고 있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청소년을 지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하중래, 조아미, 2014).

2013년 42개 연구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자유학기제가 시작되었다. 2016년에는 모든 학교에서 자유학기제 혹은 자유학년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과외 활동이 늘어나고, 청소년들의 교외 활동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 활동 서비스 e청소년에 따르면 2019년 공공기관이나 수련 시설의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은 4071건이며, 이는 2018년 3,941건에 비해 130건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은 1992년 이전 150여 개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 및 2017년은 각 799개소로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속적인 청소년 수련 시설 확충과 더불어 건전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 활동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대 등 전반적인 서비스 질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e-나라지표, 2019). 이에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전담하여 청소년의 수련 활동, 지역·국가 간 교류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예술 활동 등을 지도하는 청소년지도사의 역할은 점차 중요시 되고 있다.

청소년지도사란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 과정을 마친 후 국가(여성가족부 장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이를 말한다(청소년기본법 제 21조 제1항). 청소년지도사가 청소년의 중요한 타자가 되며, 청소년에게 다양한 활동과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은 물론 행동 양식에 대해서도 식견을 갖출 뿐 아니라 청소년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이끌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심규성, 김지연, 2012). 그래서 청소년

년지도사에게 청소년 심리·사회적 특성, 신체적 발달과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와 욕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실행, 운영, 평가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이들은 청소년 개개인의 발달과 적응을 위해 다양한 이론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여야 한다(원지윤, 이은경, 2011; 이명호, 2014).

이러한 청소년지도사의 양성에 청소년지도사 양성 학과의 전공과정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청소년 관련 학과에서 현장실습은 예비청소년지도사들에게 타인과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하며, 현장과 대학을 연계하여 청소년지도를 보다 실천적이고 유용하게 할 수 있다(박승곤, 김수정, 2012). 현장실습은 예비청소년지도사들이 학교에서 배운 전공이론과 기술을 현장에서 청소년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지, 상황에 따라 어떠한 기술과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하는 기회이다. 그런데도 현장실습을 개설한 학과는 전체 3분의 1일뿐이고, 실습학점과 시간에도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허찬, 문성호, 2014).

이러한 현실에서 현장실습의 대체재가 될 수 있는 것이 전공 관련 봉사활동이다. 대학의 봉사활동은 대학교육을 사회에 연계하는 것으로 강단에 제한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실 체험과 실제 현장을 지향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대학과 현장을 잇는 교두보이다(이은승, 이성철, 2007). 더구나 현행 청소년지도사 양성 과정에 현장실습이 필수가 아닌 상황에서 예비청소년지도사들의 전공관련 봉사활동은 부분적으로 현장실습이 담당했던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직무역량 향상과 더불어 진로 탐색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청소년관련 봉사활동을 예비청소년지도사들이 본인의 의지로 자발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에서 하는 활동들로 정의하고, 예비청소년지도사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들의 언어를 통해 어떠한 가정도 없이, 귀납적으로 결론을 얻는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예비청소년지도사로서 대학생들은 전공 관련 봉사활동의 구체적 체험을 통해 자기 경험을 반성하며 성찰할 것이고, 이를 통해 예비청소년지도사들이 자신의 미래 직업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지도사를 양성하는 전공학과에서 현장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지도사 및 예비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선행연구

청소년지도사에 관한 연구 중 가장 활발히 연구된 영역은 직무에 관련한 연구이다. 청소년지도사들이 NCS 표준직무에 얼마나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정혜원, 윤명희, 서희정, 2014)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들이 직무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밝힌 연구(장미, 2011)는 청소년 활동이 증가하면서 청소년지도사들의 직무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사의 정체성 형성과정(윤철수, 2009)과 청소년지도사가 스스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본 청소년지도사 자기 주도학습 관련 변인 연구(김진화, 2001)가 있었다. 청소년 활동 현장에 있는 청소년지도사에 관한 연구들은 1991년 청소년기본법 제정과 1993년 국가 자격 청소년지도사를 배출하면서 시작되었다.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과 역량에 관한 연구는 2008년 청소년지도사 2, 3급의 경우 기본필수과목을 이수한 자는 필기시험이 면제된 이후에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유진이, 조미솔, 2011). 또한 전문성 강화와 역량 향상을 위해 대학 교육과정을 자세히 살펴본 연구(유진이, 조미솔, 2011)와 현재 법령상 필수과정이 아니지만 현장경험과 떨어질 수 없는 예비청소년지도사들의 현장경험에 관한 연구(권양이, 오승근, 김선요, 2012; 박승곤, 김수정, 2012; 허찬, 문성호, 2014)가 있었다.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직무역량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연구가 예비청소년지도사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그 관련 학과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일 것이다. 특히 현행 청소년지도사 양성 과정에 현장실습이 필수가 아닌 상황에서 예비청소년지도사들이 현장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2. 전공 관련 봉사활동 경험의 효과

대학생의 전공 관련 봉사활동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다. 첫째, 진로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다.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만족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진로발달이 이루어졌고, 진로태도도 긍정적이었다(강종수, 2015; 전미숙, 2009).

전공과 유사한 봉사활동일수록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둘째, 전인적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 자원봉사의 적극적 태도가 대학생의 사회적 책임감과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쳤다(김옥, 2019). 전공 관련 자원봉사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자존감과 자아효능감이 향상되었고 전공 소속감과 이해도가 높았다(박소연, 김진경, 이택영, 2011). 또한, 봉사활동에 참여한 대학생일수록 지역 문제에 관한 관심도 높았다(원미순, 2003). 셋째, 직업의식을 고양하였다. 많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박민정(2017)은 교육 봉사활동이 교직에 대한 신념, 교직 의욕, 교직 인성, 교직원 형성, 자존감 증가, 진로 태도 성숙, 학업 적응 향상에 이바지하고, 지역사회 참여의식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전공 관련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작업치료학과 대학생들의 장애인 관련 봉사활동이 전공이론 학습효과에 영향을 주었다(마성룡, 홍은경, 2018). 하지만 예비청소년지도사들의 청소년 관련 봉사활동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예비청소년지도사들의 전공 관련 봉사활동이 타 전공 대학생들의 교육봉사활동과 어떤 차이와 유사점을 갖는지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III. 연구방법

이 연구는 예비청소년지도사들의 봉사활동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질적 연구는 복잡한 상호작용과 맥락,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의미 등을 파악할 수 있다(Marshcall & Rossman, 1995). 질적 연구는 사람의 삶과 그들이 구축하는 사회적 실재의 있는 그대로의 본모습이 무엇이며 사람들이 이 실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또한, 개인의 삶이 구체적인 모습과 그 속에서 주관적으로 의미를 창출하는 과정과 그 의미를 세밀히 탐구한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의 목소리와 그 현장의 과정과 맥락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여 내부자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것이다(김병욱, 2018). 연구자는 예비청소년지도사의 봉사활동 경험, 반성적 성찰, 청소년 활동 현장에서 그들의 시선을 통한 청소년지도사의 세계를 살펴보고 그것을 참여자들의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하였다.

1. 연구참여자와 연구절차

이 연구의 참여자는 G시의 4년제 청소년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청소년 관련 즉 전공관련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 13명이었다. 이 대학은 청소년 관련 과목 수, 학점이 타 청소년 관련 대학과 비교하면 평균 이상으로 청소년에 관련하여 특화되었다. 청소년 관련 현장실습 과목은 개설되었으나 필수과목은 아니어서 이 연구의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학과 소모임 대화방을 통해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 모집한 초기 참여자들이 연구참여자를 초대하는 스노우 볼¹⁾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남학생 3명, 여학생 10명이었고, 학년은 1학년 3명, 2학년 4명, 3학년 4명, 4학년 2명이었다. 참여하는 봉사활동 기관은 1~7개 있었고, 한달 평균 봉사활동 참여횟수는 4~16회였다.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8년 5월에서 6월 중에 심층 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학년 구분 없이 대상을 선정하여 다양한 봉사활동 경험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이름은 가명이다. 심층 면담은 연구자 중 1명이 직접 하였으며 면담 시간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40~9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 장소는 교내에서 이루어졌으며, 면담 전 면담내용이 녹음되는 것과 연구자가 윤리적 절차를 따른다는 것을 고지하고 동의절차를 거친 후 실시하였다. 면담내용은 mp3 음성 녹음기를 이용하였고, 면담 동안 연구자가 면담 노트를 작성하였다. 면담 절차는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였으나, 질문의 절차와 방법은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추가, 수정하였다. 녹음된 파일은 면담 시의 메모 내용과 함께 풀어쓰기 하여 원자료화 하였다.

2.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Masons(김두섭 역, 1996)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였다. 먼저 녹음된 자료와 면담 동안 기록해 둔 자료를 풀어쓰기 하였다. 면담 질문을 주제로 하여 일차적으로 분류한 다음, 풀어쓰기 된 원자료를 여러 번 읽어가면서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을 구하고, 봉사활동에 대한 의미 있는 문구나 문장을 파악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원자료에 표시하고 메모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몇 가지 지표범주를 설정한 다음, 다시 색형광펜으로 마크하고, 범주에 따라 자료를 다시 정리하였다. 정리된 1차 자료를

1) snow ball sampling은 질적 연구의 심층 면담에서 연구참여자가 연구의 취지에 동감하고 여러 동료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이루어지는 모집 방식을 말한다(Creswell, 2002)

다시 읽어가면서 공통된 의미나 문구를 선정하여, 동일 범주에 속한 것이라도 의미의 차이를 발견하면 다시 구분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세부적 유형을 탐색한 다음 유사한 선행연구와 비교를 통해 봉사경험을 유형화하였다. 방법은 연구결과에 대해 주요한 의미성을 발견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참여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이고 주요한 내용을 파악하려는 방법이다.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였고, 분석에 있어서 연구절차가 동일하게 제시되었는지, 연구에서 분석된 범주가 일관성 있게 사용되는지 반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선행연구와 여러 문헌을 살펴보고, 질적 연구의 경험이 있는 연구자 1명, 청소년관련학과 전공 교수 1명, 그리고 직접 면담을 시행한 청소년관련학과 졸업생 1명 총 세 명이 원자료를 각기 범주화한 후, 이를 통합하였고, 연구자 3명이 함께 모여 애매하고 분류가 어려운 것은 토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이는 청소년 관련 봉사활동 경험자의 입장, 청소년관련학과 전공 교수의 입장, 그리고 질적 연구 유경험자의 3자의 입장, 3자의 차이를 좁혀가면서 범주화된 유형이 타당한지 살펴보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참여자의 진술 내용이 적절히 분류되었는지 확인하였다. 이는 연구자들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연구대상자에게 확인하여 그 의미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IV. 연구결과: 봉사활동 경험 탐색

1. 셀프리더십 형성

셀프리더십이란 과업 및 직무수행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기 주도과 자기 동기부여를 통해 자신에게 스스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민재홍, 이정기, 2016). 이 셀프리더십의 주요요소는 자기관리, 목표설정, 동기부여, 과업계획, 긍정적 사고, 건강한 공동체 의식이다. 예비청소년지도사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셀프리더십을 형성하고 있었다.

“제가 계획서부터 평가까지 썩 다 직접해보면서 실무자 선생님한테 피드백 받으면서 한 거잖아요. 이제 좀 이게 힘들면서 재밌었다고 해야 할까요....”(영원)

“처음 사업도 담당을 해서 진행을 해봤고 또 계획서나 보고서 같은 것도 작성을 해

봤고 지출서 예산안 그런 것도... 그런 거 경험하면서 많이 얻어가는 거를 느꼈고.”(채인)

예비청소년지도사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실무적인 업무를 경험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원, 채인이 말하는 대로 기획에서부터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하는 기회는 자기 주도적 업무처리와 자기 동기부여를 하게 하였다. 이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관리하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며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Neck, Stewart와 Manz(1995)가 말하는 셀프리더십의 형성이다. 이는 다른 사람의 지시나 통제가 아니라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게 한다(Neck & Houghton, 2006).

“이거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를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청소년 활동 진행을 하는 거로 하자라는 생각으로 일단 취지는 그렇게 만들었어요.”(민주)

“관장님이 저한테 계속해보겠느냐 하셔서... 제가 팀장이 되고 동기랑 둘이서 같이 하게 되었는데... 저도 애들한테 이런 거 있으니까 나랑 같이해볼래? 하고 제가 영입을 했는데”(채인)

민주와 채인은 봉사활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모임을 이끌고 다른 이들을 모집하였다.

“(첫 행사)에서 스티커 붙이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스가 없는 거예요. 스티커가! 그래서 혼자 속상해 가지고 이게 뭐지 하면서 엄청 좌절을 겪었던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행사에서 똑같은 걸 진행했었어요. 그리고 활동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었어요.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어떤 건지 알고 활동들을 봐주고 하니까 아 이제 뿌듯(웃음) 또 뿌듯했어요.(웃음)”(민주)

민주는 첫 행사를 실패라고 평가했고, 그것에 대한 반성적 성찰로 다음번 행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민주가 자기관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잘 조절하여 성과를 향상한 결과일 것이다(이현정, 2019). 이처럼 셀프리더십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계획 세우고 능동적인 노력을 하게 한다(박영배, 김명숙, 2017).

“너무 간단하고 누구나 가능한 부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뭔가 청소년지도사들이 좀 더 이런 구시대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좀 창의적이고 좀 더 감각적인 활동들을 더 만들어야겠다 만들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채훈)

“인스타 일단 페이스북 sns를 중심으로 두기로 했어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죠. 재미있게 애들한테 좀 다가가기 쉽게 홍보를 하려고 기획하고 있어요.”(영원)

“(웃음)맞아요. 올해 100시간 채우는 게 목표예요. 올해 40시간? 정도 채웠어요.”(민재)

채훈과 영원은 기존의 틀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민재는 봉사활동을 통해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교육 봉사활동을 통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신감이 향상되었다는 연구(유신재, 임지선, 2014)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을 성찰할 기회를 얻고, 타인에게 도움을 줄 기회를 통해 보람과 성취감을 느낀다는 연구(신근화, 옥수선, 2014; 이은승, 2008)의 결과와 일치한다.

2. 관계 형성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인관계는 대학생들의 봉사활동에 참여 동기를 높이고 지속하게 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양한익(2018)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봉사활동 과정 중에 경험하는 동료, 실무자와의 관계가 봉사활동 지속 의지와 상관관계가 있었음을 밝혔다. 또한, 봉사활동은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이들의 기준을 반영하여 즉 가족이나 지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또는 봉사활동 참여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기준 인물의 욕구를 충족하려는 동기에서 행해지기도 했다(Clary, Snyder, & Rigde, 1992). 이 연구의 결과도 비슷하였다.

“1학년 때 자기계발이라고, 교양이 있는데 꼭 들어가 하는데.. 그 담당이 ○○○교수님 이셨어요. 교수님이 내가 너 추천 해줄 테니까 가라 해서. 교수님이 추천 해주셔가지고, 봉사를 그 전에 할 생각이 있었는데 갑자기 하게 됐어요.” (민주)

“교수님이 이런 거 있다 해봐라 해서... 팀원들이 같이해도 된다. 이해해주겠다 해서 지금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어요.”(채인)

“교수님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갑자기 검정고시 학습지도를 해볼 사람이 있네요... ○○(동기)랑 같이 하면 교수님한테도 잘 보일 수 있지 않을까(웃음) 한 번해보자 해서”(준희)

민주, 채인, 준희 모두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교수의 권고에 따른 것이었다. 대학생 시기에 교수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교수는 학생들의 기준 인물일 뿐 아니라 평가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준희처럼 잘 보이려는 외적 동기만이 아니라 민주나 채인처럼 교수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자부심이 봉사활동을 지속하게 하였다.

“선배들이랑 친해지고 싶기도 하고, 친구들이랑도 대화 많이 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신아)

“선후배 사이도 좋아졌었고... 부스 운영하는 걸 되게 많이 배웠던 거 같아요”(현국)

“약간 다양한 사람 만나고 그런 쯤 그러다보니까 되게 음..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부스를 차렸잖아요.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여기 사람들이랑 다같이 합동해서 (행사를 운영해요)”(희라)

신아, 현국, 희라의 봉사활동에서 중요한 요소는 관계 형성이었다. 대학생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타인과 협력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성이 향상된다(강중수, 2015). 봉사활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동료와 함께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과의 관계가 원만할 때 봉사활동이 지속될 수 있다. 교육 봉사활동에서도 대학생들은 서로 협력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더 결속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유신재, 임지선, 2014).

“수업 때 강의로 오신 시 수련원 분께서 예비청소년지도사 해보면 어떻냐고 해가지고”(민재)

“기관끼리 좀 더 많이 친해지면..그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기관끼리 좀 더 친해지면 좋을 것 같다”(신아)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에서 지속집단과 비지속집단을 유의하게 구분하는 대인관계요인은 동료봉사자와의 관계, 담당 직원과의 관계, 가족의 지지도였다(홍연숙, 2002). 민재와 신아의 진술대로 실무자와의 관계는 봉사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요인이다. 대학생들과 봉사활동 대상자, 관리자, 동료와의 관계는 자원 봉사 만족도를 통해 봉사 지속성에 간접효과와 직접효과가 있었고, 다른 변인보다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의미있는 변수였다. 봉사활동은 타인과 상호작용에 만족을 느끼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오효근, 김육, 2008).

이는 봉사활동에 있어서 기관, 관리자, 동료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관리자와 봉사활동 실무자가 효과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료 봉사자와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봉사자 자신과 봉사활동의 지속에 영향을 준다(신근화, 옥수선, 2014).

3. 진로 탐색

“저는 원래 꿈이 레크레이션 강사예요. 청소년지도사보다”(채훈)

“원래 저는 원래 유교과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진짜 학과선택에 진짜 엄청 많이 울었었어요. 원하는 학과를 못 가게 되는 상황이어가지고”(민주)

“원래는 사회복지 가려고 했는데”(민재)

“저는 취업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깐”(영원)

“간호학과 아니면 뭐 유아교육과 이런 쪽? 그냥 남들 많이 가는 학과”(선희)

“상당사가 되고 싶어서 입학을 했었어요.”(채인)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처음부터 청소년지도사가 되고자 하지 않았다. 오히려 ‘성적에 맞추다 보니까’(민주)와 같은 현실적인 이유로 학과를 선택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나이에 대학 진학이라는 목표 탓에 관심 영역이나 적성을 고려할 여유없이, 대학에 입학한다. 따라서 대학 시기 동안 진로를 다시 탐색하는 경우가 많다(남윤희, 2007). 또한 직업선택에서도 성적이나 가족의 영향을 받아서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직률이 높은 것도 현실이다(남아란, 하정, 2012).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외국보다 진로발달 수준이 낮고, 직업선택의 폭도 좁다(윤명희, 유형숙, 2010).

“이 학과가 저에게 잘 맞다는 생각이 있는데, 청지사(청소년지도사)가 과연 제가 생각하는 저의 자아실현을 할 수 있을 안성맞춤 직업일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채훈)

“청지사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이제 보고 들으면서 아 이러면 또 뭘 하고, 내가 되면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는 꿈을 가지면서 그러고 있어요.”(민주)

“제가 솔직히 처음에 이제 아무 것도 모르고 와가지구... 그래서 나는 뭘 해야돼나 해가지고 이거(봉사활동)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영원)

“저는 청소년들이 그렇게 맞다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청소년들을 접하고 나니까 되게 좋아서, 꿈에 대한 확신. 이쪽 직업을 가져도 괜찮겠다 생각을 조금 가지게 되었어요.”(현국)

“상담사가 되려고 왔는데 과 생활을 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저한테 더 재밌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걸 했을 때 힘들어도 짜증이 안 났어요. 힘들어도 보람을 더 많이 느끼니까 지도사에 더 매력을 느껴서.. 지도사 멋있어요!”(채인)

대부분 참여자는 진로를 결정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했지만,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한 경우가 많았다. 처음에 채훈은 레크레이션지도사, 민주는 유아 교사, 영원과 채인은 상담사가 되려고 했다. 현국은 자신이 청소년과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봉사는 그들의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진로에 영향을 미쳤다. 대학생들은 봉사활동이 진로 선택과 경력 쌓기에 도움이 되고 폭 넓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신근화, 옥수선, 2014). 특히 전공과 관련한 봉사활동은 배운 지식을 현장에 적용하기 때문에 미래 직업 세계를 경험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진로를 고민하고 준비하게 한다(허성은, 2016). 전공관련 봉사활동 참여가 자기 개발성, 직업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강수경 외, 2019). 사회복지학과 학생 대상 연구에서 학년이 높을수록,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자원봉사 만족이 높을수록 긍정적 진로발달을 보였다(강종수, 2015). 또한, 전공관련 봉사활동을 경험한 대학생들이 전공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박필남, 2017; 허성은, 2016). 민주의 경우, ‘학과선택을 하면서 많이 올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민주는 게이트키퍼²⁾로서 적극적 참여 양상을 보였다. 즉 그만큼 봉사활동을 통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간파와 제한

Willis(2004)는 문화적 저항을 통한 사회재생산 과정을 간파(penetration)와 제한(limitation)의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다. 간파란 노동계급의 학생들이 장차 하게 될 일이 육체적 노동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정신노동의 가치를 거부하고 그들 스스로가 육체노동을 남성들이 하는 괜찮은 직업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노동계급의 남학생들은 부모, 친척의 노동,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그들의 미래 직업이 학교에

2) 게이트키퍼(gatekeepers)란 질적 연구 장면에서 공식적 혹은 비공식 대변인 역할을 하는 자로서, 연구 장면에 출입을 허가하고, 연구를 돕고, 연구현장에 참여하는 주요인물을 말한다(Creswell, 2002).

서의 진로지도와 교육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터득한다. 즉 간파란 한 문화 맥락에 속해 그 구성원들이 처한 삶의 조건과 전체 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꿰뚫어 보게 한다(조발그니, 2012).

제한이란 정신적 노동과 육체적 노동의 구분이 존재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에서는 노동자 계급의 자녀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성공에는 한계가 있듯이 학교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김병욱, 2013).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지도사의 좌절경험은 경제적 어려움, 조직 내 인간관계 불화, 그리고 전문적 지식 부족에 의한 것이었다(원지윤, 이은경, 2011). 이 연구에서 예비청소년지도사들은 청소년 관련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미래 직업을 ‘간파’하고 ‘제한’하였다.

“생각해보면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하는거예요. 듣다 보면 진짜 내가 이렇게 이걸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청지사라는 꿈에 대해서 이제 아니다 라는 생각까지도 들어요”(민주)

“저는 그냥 제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하고 싶은 거를 한 거라서, 돈도 필요 없고 입에 풀칠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웃음)”(민재)

“나는 걱정하고 살고 싶지 않다. 솔직히 청소년지도사는 열정 페이라고 하면 열정 페이일 수 있는데”(혜리)

민주, 민재, 혜리 모두 봉사활동을 통해서 청소년지도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현실적으로 4학년인 민주는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청년 지도사를 해야 하는지 망설이고 있었고, 1학년인 민재는 자신의 전공 선택에 만족하려는 ‘일관성의 법칙’³⁾을 보인다. 한편 혜리는 청소년지도사를 ‘열정페이’라고 단정하였다. 20여년 전 초기 청소년지도사의 직무 만족을 연구한 조아미(1997)는 청소년지도사들이 승진기회나 월급 액수에 대해 불만족하는 편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하중래, 조아미(2014) 연구에서 청소년지도사의 직무 자체에 만족하고 여기에서 보람을 느끼는 이들이 56% 정도라면 청소년지도사를 단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이들이 44%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종사경력이 1년 미만일 때 청소년지도사를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높았고, 경력이 많을수록 직무에 대한 만족

3) 일관성의 법칙이란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맹목적인 욕구를 말한다. 일단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나면, 그러한 선택에 일치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부담감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전에 취한 선택이나 입장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든다(Cialdini, Goldstein & Martin, 2013).

이 높았다. 이는 종사경력이 많을수록 지위가 높아지고, 급여 수준이 상승한 탓으로 여겨진다. 초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청소년지도사로서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현실과 다른 직업과의 급여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원지운, 이은경, 2010). 예비청소년지도사들은 기관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청소년지도사를 만나게 되고 그들의 경제적 여건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열정적이지다라는 것 밖에 몰랐는데 지금 같이하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분을 보면 조금 아니다는 생각을 해요.”(민주)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바꿀 수가 없구나”(채인)

“청지사는 만능이어야 한다. 쌤들이랑도 이야기하면서 청지사는 다 잘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솔직히 뭐 체력도 좋아야 되고 프로그램하면서 다 배우잖아요. 청소년들이랑 해야 되는 뭐 기제도 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글씨꾸미는 거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깐...”(영원)

“레크리에이션 강사처럼 말도 잘할 줄 알아야하고, 기획안도 잘 짤 수 있어야 되는데 또 굉장한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그걸 풀어 나갈려는 방법들이나 아니면 자원을 찾는 것도. 일이 생각보다도 많더라구요(웃음)”(시현)

민주와 채인이 ‘간파’한 청소년지도사라는 직업은 힘들어도 내색을 할 수 없는 직업 즉 감정노동자였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지어야 하고, 낯선 청소년에게도 눈을 맞춰 대화를 나눠야 한다. 이러한 특유의 노동을 감정노동, 정서노동이라고 한다(조발그니, 2019). 즉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과의 관계에서만 아니라 대인 관계 속에서 상대가 원하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진실된 감정을 숨겨야 한다. 민주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아니다’라고, 채인은 ‘어쩔 수 없구나’라고 표현한다. 영원과 시현은 청소년지도사가 여러 가지 능력을 지닌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존재라고 생각했다.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직무가 프로그램 개발이며, 청소년 수련활동 및 프로그램 기획, 설계자의 역할이라고 한 정혜원, 운명희, 서희정(2016)의 연구 결과와 부합한다. 청소년지도사는 평생교육사와 같이 프로그램 기획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실제로 평생교육사들은 기획,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가장 느끼고 있었다(박명신, 2012).

예비청소년지도사 또한 청소년지도사에게 전문성이 무엇보다 절실한 것으로 ‘간파’했다. 이는 심규성, 김지연(2012)이 지적한 대로 청소년지도사에게 캠프운영 능력, 문화활동 지도, 레크레이션 지도 등 청소년지도의 극히 일부 영역만 강조한 탓일수도 있다. 이는 후에 청소년지도사가 되어서 본연의 임무를 파악하는 데에도 혼선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은 전공과목 외에 현장경험의 부족, 정책 변화에 따른 정보, 지식 부족, 청소년과의 괴리감 같은 것으로 이것들이 청소년지도자로서 겪는 전문가로서의 어려움이라는 것을 밝힌 원지윤, 이은경(2011)의 연구결과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거의 6일 근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월요일날 쉬잖아요. 저는 주말 쉬는 걸 원하는 타입이어가지고”(영원)

“일단은 업무에 치인,, 일단은 아이들한테만 치이는 것도 충분히 힘든 데, 위에 사람들처럼 업무에 치이고 이러니까”(현국)

“행정적인 업무도 엄청 처리해야 될 게 많아지고 또 그런 거에 시달리다 보니까 애들한테 많은 관심을 못 주게 되고 또 아무래도 팀을 이뤄야 되는 직업이니까”(채인)

영원이 ‘간파’한 청소년지도사의 일은 주말에 일하는 직업이었다. 청소년지도사는 주말에 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하고,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할 뿐 아니라 개인 생활이 없어져 근무 의욕을 잃게 하여 결국 소진되었다(이명호, 2014). 게다가 현국과 채인이 ‘간파’한 대로 청소년지도사는 관계 안에서 일을 해야 한다. 이는 조직에서의 일보다는 사람과의 관계, 조직에서의 상황에 의해서 좌절을 겪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원지윤, 이은경, 2011; 이정아, 민희정, 2019). 이와 같은 청소년지도사의 근무여건은 그들에게 요구되는 역할 및 업무량에 비해 열악하다. 이런 환경과 처우, 낮은 보수수준은 청소년지도사의 사기를 저하하고 높은 이직률, 그리고 소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이정아, 민희정, 2019). 이를 예비청소년지도사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간파’하고 있다.

“예산이라는 거는요. 기획이 확실해지면 부스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예산이 막히니까 규모가 한없이 작아지고,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해요. 제도적인 부분이니까”(채훈)

“하면 할수록 틀에 박히는 것 같아요. 너무 틀에 얽매어 있지 않나, 이걸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건 저것 때문에 안 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걸 쓰려면 예산 때문에

다 적고 위에 통과를 받아야 하고, 이런 걸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지장이 생기는 거 같아요”(현국)

채훈과 현국은 현실적 한계 때문에 ‘제한’을 경험하였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애를 쓰더라도 결정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지도사들에게 기관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필요한 기자재 구비와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연구(이명호, 2014)와 같은 이유로 파악된다. 종사경력이 1년 미만일 경우, 청소년지도사를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이들이 많았다(하중래, 조아미, 2014). 이는 기관 내 조직이 유연하지 못한 탓일 수도 있지만 아무리 제안하더라도 결정 권한이 없는 조직 분위기 혹은 예산이라는 한계 때문에 노력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한계 탓에 소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5. 현장 경험

Dewey에 따르면 교육은 경험의 연속적 재구성이며, 교육적 경험은 경험의 지속성과 사회와 상호작용을 통해 이뤄진다. 인간의 학습과 사회화는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동기와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실생활에 참여하게 한다(최윤정, 2015). 현장실습은 현장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예비청소년지도사의 교육적 경험을 도모할 수 있다. 예비청소년지도사가 청소년을 지도하고 봉사하는 현장을 경험하고 그 경험으로 인해 필요한 것을 학습한다는 데서 전공관련 봉사활동 역시 예비청소년지도사의 현장중심 교육의 하나이고 실습일 것이다(박인심, 2014).

“청소년책을 봐도 와 닿지는 않는데 만나서 얼굴보고, 그 현장에 직접 나가서 뛰어보고 그래야 아이들을 좀 더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민재)

“이론으로 주구장창 배워봤자 거기서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활동을 많이 하든지 아님 진짜 진행이나 진행이 아닌 거라도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눈으로 보고 직접 해봐야 할 수 있다고. 경험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영원)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과 가서 하는 건 정말 너무나 달라서 학교에서 이제 이론가지고는 아무것도(웃음)할 수가 없어서”(시현)

“당연히 실무경험이요. 지도사 분들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생각하시는 걸 들어보면 아 이래서 경력은 무시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장이랑 이론이랑 진짜 겹

이 너무 크더라고요. 청소년지도론도 교육론도 똑같더라고요. 실제현장이랑은 정말 동떨어진.”(채훈)

민재, 영원, 시현, 채훈은 이론과 현장의 괴리를 언급했다. 그리고 봉사활동이 책에서 배우지 못하는 경험학습을 하게 한다고 진술했다. 전공연계 봉사활동은 교육적 의미가 강하다. 봉사활동의 체계, 교육, 활동이 모두 학과와 연계될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습은 사회복지 지식과 기술의 습득,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지식과 기술적용 그리고 사회복지사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박순미, 손지아, 2018; 허성은, 2016). 현장실습은 이론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지 다양한 상황에서 어떤 기술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하는 기회이다(유진이, 조미술, 2011). 특히 현 자격제도에서 현장실습이 필수로 지정되지 않고, 학점 및 이수시간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에 대한 이해는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지도사가 현장에서 프로그램 운영 능력과 필요한 지식 간에 괴리가 발생했고 늘 기계처럼 반복되는 업무와 전공지식이 충분히 발휘될 수 없는 현실 탓에 낮은 직업적 정체성을 가졌다고 보고하였다(이명호, 2014).

“이걸 참여하면서 지도사 선생님들이 원하는 지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일단 활동위주의 그런 일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커요. 활동하기 전에는 진짜 서류적인 준비할 것도 많았고, 모아둘 것도 많고, 서류정리 해야 할 것도 많고... 서류정리 면에서도 교육을 받았으니까 취업할 때 좀 더 이해도가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게 있어요.”(다예)

“실무자 선생님들 하시는 거 옆에서 볼 때가 많으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쌤들이 해결해 나가는 방법 같은 거를 약간 배울 수 있다고”(민아)

“예비청소년지도사는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진행을 했을 때 둘 다 상황을 알게 되니까 조금 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애들이 뭘 더 필요로 하겠구나 어떤 거를 원하고 있구나를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웠고.”(채인)

“청소년지도사로서 하는 건 또 다를 텐데. 이제 그냥 활동하는데 눈앞에서라도 결눈질로라도 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혜리)

민아, 채인, 혜리는 실무자의 현장업무를 보면서 취업해서 해야 할 일을 넘지시 배울 수 있었다. 이를 ‘어깨너머학습’도제학습이라고 한다. 도제학습은 교육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학습으로 전문성을 갖춘 장인을 통해 이뤄지는 비형식적 학습으로서 장인의 시범과 경험을 관찰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박주만, 2019). 예비청소년지도사는 실무자들의 업무를 관찰하고 실무자들의 모델링을 통해 어느 정도 실무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업무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실무자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피드백을 제공하기도 했다. 실무자의 방법적지식(know how)을 토대로 체득한 기술을 보면서 채훈의 표현대로 하자면 “경력은 무시” 못하는 것이었다. 실제상황에서 해결방법을 찾는 문제해결학습의 장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하고, 자신의 직접적 경험을 통해 방법을 찾기도 한다.

“멘토링을 해야 하는데 아이가 말도 안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진짜 되게 엄청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씩 만나면서 한 번씩 쳐다도 봐주고 자기가 확실히 좋아하는 걸 이야기를 하면 말이 많아지더라고요.”(민주)

“이제 애들의 관심사에 대해 파악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일단 아이들의 관심사나 문화를 먼저 알고, 제가 너무 고정관념이 있으면 안 되니까 좀 깰 수 있는 활동들인 것 같아요.”(영원)

“청소년들이 많아서 그 시대 흐름을 좀 따라갈 수 있다 해야 하나... 근데 그걸 또 배워가지고 활용하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더라고요. 다 중학생 애들이어서 애들이 막 알려주고 아니면 그거 이제 한물갔어요. 이런 말 들으면 다른 거 배우고(웃음)”(준희)

민주, 영원, 준희는 봉사활동이 청소년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교육 봉사활동에서 현장경험, 새로운 지식의 습득, 교수학습의 다양화, 창의적 프로그램 고안 능력 향상보다 아이들과의 소통이 가장 의미 있는 일로 꼽은 연구(유신재, 임지선, 2014)와 부합한다. 또한,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이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직접 만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받는 보람, 만족, 사회복지사로서 느끼는 자부심을 들었던 것과 같은 이유이다(한상미, 2015).

예비청소년지도사들에게 봉사활동은 직, 간접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배운 방법적 지식이나 공문서 작성, 프로그램 운영 및 진행, 청소년지도 방법을 체득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과 함께 배우고 깨우칠 수 있는 참여 성장(김무영, 2015)의 기회가 되었다.

V. 결론

이 연구는 예비청소년지도사들의 청소년관련 봉사활동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경험을 살펴보고, 현장의 맥락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예비청소년지도사들의 전공 관련 봉사활동 경험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관련 전공학과와의 어떠한 노력이 요구되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를 위해 G시에 소재한 청소년관련학과 대학생 중 청소년 관련 봉사활동을 하는 1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과 성찰을 통해서 확인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예비청소년지도사들의 봉사활동 경험 유형을 탐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예비청소년지도사들의 전공 관련봉사활동 경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첫째, 셀프리더십 형성이다. 예비청소년지도사들은 봉사활동에서 프로그램을 스스로 기획하고, 시행, 운영, 관리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을 위해 동아리를 조직 운영하고 동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였고,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찾아 나서는 등 셀프리더십의 형태를 보였다.

둘째, 관계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자원봉사의 지속요인으로 많은 선행연구가 주장한 것과 같이 예비청소년지도사들은 전공 관련 봉사활동에 있어 관계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 교수나 기관 관리자와 같은 규준이 되는 인물에 의해 봉사활동 추천을 받았다. 나아가 선후배를 포함한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셋째, 봉사활동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대다수가 학과를 입학할 당시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른 전공을 하려다 어쩌다 청소년관련학과에 온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청소년지도사를 자신의 미래 직업으로 설정한 경우가 많았고, 잠재적 적성을 발견하였다.

넷째, 전공 관련 봉사활동을 통해 청소년지도사의 현실을 ‘간파’하고 ‘제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청소년지도사의 경제적 어려움, 조직 내의 관계의 어려움, 내적 갈등을 봉사활동을 통해 간파하였고, 실무자로서 갖는 업무의 한계를 아는 ‘제한’을 경험하였다.

다섯째, 예비청소년지도사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현장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론수업에서 배울 수 없는 현장 경험을 통해 이론과 실천의 차이를 깨달았고, 실무 경험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또한, 실무자들의 업무를 ‘어깨너머’로 보면서 경력이 중요하고, 후에 자신이 실무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지적 도제학습이 이루어졌다. 또한 만나는 청소년을 통해 청소년의 문화와 심리를 파악하고 이들과 함께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학과 차원에서 예비청소년지도사들의 청소년관련 봉사활동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은 학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학과에 입학하였다. 따라서 학과 전공에 관련한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가 미흡한 것은 당연하다. 연구에 참여한 이들은 대부분은 스노우볼 방식을 통해 연구에 참여했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하는 이들로서 봉사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반대로 실패한 사례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은 다양한 봉사활동의 사례를 수집하고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살펴봐야 한다. 또한 각 기관마다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의 특징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을 고려한 봉사활동 추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김민환, 박찬주(2014)는 교육봉사활동이 교육실습과 달리 명확한 기준 없이 대학 차원에서 재량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운영과정 전반이 치밀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교육봉사활동에 대한 사전교육, 중간 점검 및 지도, 그리고 사후 평가나 교육 등이 필요하다. 현재 예비청소년지도사들의 봉사활동은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나 이를 통해 현장경험을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학과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하나의 방법으로 포트폴리오는 자신의 변화를 인지할 수 있게 해주며 성찰을 통해 숙고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봉사가 활동을 넘어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권순철, 김성봉, 2015).

둘째,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봉사활동 지속을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관계 형성이었다. 따라서 선 후배 혹은 기관 관리자와 예비청소년지도사를 잇는 튜터링이나 멘토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멘토링은 80년대 이후부터 미국, 영국,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교사를 지원하는 유용한 방식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조운주, 2001). 특히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국은 이미 초임교사 뿐 아니라 예비교사를 위한 멘토링을 제도적으로 정착,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중심 교사교육체제를 형성하여 관련 대학과 해당 교육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이영국·강신복, 2007). 튜터링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역할을 배분하여 구체적인 학습영역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에 대해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하여 학습해나가는 것이다(전정희·이인원, 2010). 학생들은 튜터링 하는 동안 과제를

수행해 내려는 집착력을 가지며, 유능감, 자아통제, 동기를 향상한다. 튜터는 튜티에게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미리 검토함으로써 튜티 만큼 많은 것을 배웠으며, 또래끼리는 서로 비슷한 어휘를 사용하고 사고방식도 비슷해 자료를 이해하기 쉽고, 피드백을 주어도 덜 위협적이었다(전정희·이인원, 2010). 산학연계 혹은 취창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예비청소년지도사들이 봉사활동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현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장 실무지도자에 대한 교육과 만남이 필요하다. 연구에 참여한 예비청소년지도사들은 봉사활동 현장에서 만난 청소년지도사의 ‘어깨너머’ 교육을 통해 현장실습능력을 학습했다. 또한 현장실무자들의 태도와 여건을 관찰하면서 그들의 현실을 ‘간파’하고 ‘제한’하였다. 인지적 도제학습에서 중요한 요소는 시범과 학습방법 안내이다. 따라서 실습지도자가 실습에 관련한 업무와 학습을 연계하여 모델을 제시하고, 안내하는 모델링이 필요하다(이정은, 2016). 예비청소년들이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서 직간접적 경험이 필요한 것처럼 현장실무자들도 대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간파’와 ‘제한’은 은연중에 일어나는 것이고, 잠재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부분 예비청소년지도사가 만나는 현장 실무지도자들은 관리자가 아니라 근무연수가 적은 청소년지도사들이다. 근무연수가 적을수록 이직률이 높고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청소년지도사를 한다는 선행연구(하중래, 조아미, 2014)를 고려하면 이들의 불만이 은연중에 예비청소년지도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기관을 방문할 때 관리자와의 만남뿐만 아니라 현장실무자들과 만남이 요구된다. 봉사자들을 지도하는 기관의 실무자들 간에 정보교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과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 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만남이 있을수록 봉사활동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원지윤, 이은경(2011)의 연구에 의하면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지도사들은 일 자체가 재미있었기에 경제적인 어려움, 복지적 차원의 어려움, 인간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는 이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지도사라는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청소년지도사는 다른 전문직이 가지고 있는 만큼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 이유는 청소년에 대한 독점적 교육 및 보호를 청소년지도사만 가진 것도 아니고, 현행자격 조건이 까다롭지도 않고, 연수 기간이 길지도 않아서 사회적으로 전문가로서 인정되기 쉽지 않다. 또한 그들 스스로 전문가라는 인식이 없다. 따라서 승진의 기회나 근무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이직하거나 다른 직군을 찾으려고 한다(하중래, 조아미,

2014). 이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이 향상되면 청소년지도사의 소진이 경감된다거나(이정아, 민희정, 2016), 대학에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태도 측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언(정혜원, 윤명희, 서희정, 2016)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청소년지도 관련 학과에서는 보다 선별되고 사회적 요구에 맞춘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언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연구참여자의 선발이 임의적이었다. 학과 소모임 대화방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였기 때문에 연구 취지에 공감하고, 이미 대부분 청소년지도자로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이 참여하여 실패사례나 갈등사례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 만일 연구참여자를 다양하게 모집할 수 있었다면, 예비청소년지도사들의 봉사활동 불참 이유 혹은 실패 이유를 통해 다양한 교육의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연구의 타당화를 위해 다양한 입장을 취한 연구자의 태도가 질적연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질적연구는 '내부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좀 더 객관화하고, 청소년관련 학과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좀 더 발전적인 목표를 지니기 위해 내부자의 입장이 어느 정도 희석되었을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 다양한 연구방법 즉 포커스 집단, 민생지나 현상학적 연구가 이뤄진다면 연구참여자들의 능동적이고 생생한 수행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봉사활동이 일관적이지 않아서 연구참여자들의 다양한 경험이 다각적인 면에서 부각될 수 없었다. 또한 여러 학년이 있어서 그들의 입장을 일반화하여 볼 수 있는 면이 있다. 이는 질적연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본래의 모습이지만 이를 통해 모든 예비청소년지도사가 이러한 것으로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를 보다 잘 증명하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에 대한 기간을 정하고 봉사활동 전과 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탐색과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수경·김다혜·김선혁·노시홍·신민규·신혜인·윤효정·임동욱·오명화(2019). 대학생의 전공관련 봉사활동이 공동체 의식과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효과.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3(1), 175-184.

강종수(2015). 자원봉사활동이 사회복지학 전공생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

- 학회논문지, 15(6), 236-246.
- 권순철·김성봉(2015). 중등교육과정에서 학생봉사활동과 봉사학습의 확장. *교육종합연구*, 13(4), 89-114.
- 권양이·오승근·김선요(2012). 대학생들의 청소년지도사 실습업무경험과 중요성 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4(2), 72-99.
- 김무영(2015). 교육봉사활동을 통한 예비체육교사의 반성 경험과 교육적 의미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2), 639-661.
- 김민환·박찬주(2014). 교육봉사활동 교과 운영 실태와 개선방향. *학습중심교과교육연구*, 14(2), 229-252.
- 김병욱(2013). *교육사회학*. 서울: 학지사.
- 김병욱(2018). *질적연구의 실제*. 서울: 학지사.
- 김육(2019). 대학 사회봉사가 대학생의 도덕성과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효과 연구. *생명연구*, 51, 155-178.
- 김진화(2001). 청소년지도사 자기주도학습의 관련변인 연구. *농업교육과인적자원개발*, 32(1), 113-130.
- 남아란·하정(2012). 대학생의 진로선택유형과 진로미결정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청소년시설행경*, 10(3), 27-37.
- 남윤희(2007). 2007년 신입생실태조사 분석. *학생생활연구*, 30, 1-40.
- 마성룡·홍은경(2018). 장애인관련봉사활동 수업을 통한 작업치료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장애인식 및 장애인수용태도에 대한 변화.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2(8), 241-248.
- 민재홍·이정기(2016). 대학생 자원봉사 직무특성이 활동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14(2), 45-81.
- 박명신(2012). 평생교육사 직무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교육발전논총*, 33(1), 165-186.
- 박민정(2017). 예비교사들의 교육봉사활동의 교육적 효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열린교육연구*, 25(1), 237-258.
- 박소연·김진경·이택영(2011). 대학생의 전공관련 자원봉사가 자존감,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2), 376-384.
- 박순미·손지아(2018).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요인이 사회복지전공학생들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12), 558-569.
- 박승곤·김수정(2012). 예비청소년지도사의 현장실습 경험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4(3), 29-46.

박영배·김명숙(2017). 간호대학생의 리더십 생활기술과 성취동기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간호행정학회지, 23(5), 494-503.

박인심(2014). 협력학교 기반 교육봉사활동의 성과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31(20), 1-27.

박주만(2019). 초등학교 국악 기악 소금수업에서 인지적 도제 학습방법의 적용효과. 음악교육연구, 48(2), 17-36.

박필남(2017).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 감성지능, 전공만족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 2644-273.

신근화·옥수선(2014).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주관적 인식 유형. 학교사회복지, 29, 177-203.

심규성·김지연(2012). 한국의 청소년복지 패러다임과 스포츠복지 개념을 적용한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강화 방안. 한국운동재활학회지, 8(3), 93-106.

양한익(2018).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효근·김옥(2008).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 결정요인에 대한 경로분석. 사회복지정책, 35, 297-327.

원미순(2003). 봉사학습 경험 대학생의 지역사회참여의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실천, 3, 43-69.

원지윤·이은경(2011). 청소년지도사의 좌절 극복경험을 중심으로 한 전문성 발달과정 연구. 상담평가연구, 4(1), 51-62.

유신재·임지선(2014). 추수지도 프로그램을 통한 대학생들의 인성변화에 대한 질적연구. 교양교육연구, 8(40), 243-272.

유진이·조미술(2011). 청소년지도사 양성교육기관의 교과과정 실태분석. 청소년시설환경, 9(3), 41-51.

윤명희·유형숙(2010). 한일 관광관련학과 대학생의 희망직업. 일본근대학연구, 27, 203-216.

윤철수(2009). 청소년지도사의 정체성 형성 과정 연구-근거이론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6(3), 123-147.

이명호(2014). 청소년지도사의 직무 소진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2(4), 193-201.

이영국·강신복(2007). 초등체육에서 반성적 멘토링 모형의 실천 가능성 탐색. 한국스포츠

- 학회지, 14(4), 155-172.
- 이은승(2008). 홀리스틱 교육의 관점에서 본 대학생 봉사학습에 대한 인식. 홀리스틱교육연구, 12(2), 85-102.
- 이은승·이성철(2007). 해외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의 역량분석.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20(3), 115-136.
- 이정아·민희정(2019). 청소년지도사의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7(3), 5-14.
- 이정은(2016). 현장실습의 인지적 도제 기반 지원도구 개발을 위한 교육요구도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2), 1075-1101.
- 이현정(2019). 무용전공 대학생의 감정지능이 셀프리더십과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58(3), 305-316.
- 장미(2011). 청소년지도자 직무역량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28, 114-144.
- 전미숙(2009).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사회복지전공생의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정희·이인원(2010). 튜터링 프로그램에 관한 예비유아교사의 경험. 열린유아교육연구, 15(4), 239-262.
- 정혜원·윤명희·서희정(2016). NCS를 활용한 청소년지도사의 직무 수행실태 및 요구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13(4), 121-143.
- 조발그니(2012). 지방사립대학교 간호학과 여학생들의 직업인식. 직업능력개발연구, 15(2), 103-127.
- 조발그니(2019). 교육사회학; 유아교육현장 사례중심. 서울: 박영사.
- 조아미(1997). 청소년지도사의 성격유형과 직무 만족도. 사회교육연구, 3(2), 209-230.
- 조운주(2001). 유아교육 실습지도교사 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윤정(2015). 사회과 예비교사들의 교육봉사활동 경험과 교사전문성 신장. 54(1), 15-29.
- 하중래·조아미(2014). 청소년지도사의 직무만족 잠재계층유형화와 관련변인과의 차이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11(2), 115-136.
- 한상미(2015). 사회복지기관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국자치행정학보, 29(4), 257-276.
- 허성은(2016). 대학생의 사회봉사활동 경험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및 학업성취도에 관한

- 융합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7(4), 85-96.
- 허찬·문성호(2014). 예비청소년지도사의 전문직 정체성의 특성 및 영향요인. 청소년학연구, 21(1), 343-365.
- 홍연숙(2002).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 지속결정요인. 청소년복지연구, 4(1), 75-97.
- Cialdini, R. Goldstein, N. J. & Martin, S. (2013). 설득의 심리학, 황혜숙 역, 서울: 21세기북스.
- Clary, E. G., Snyder, M. & Ridge, R. (1992). Volunteers' motivations: A functional strategy for the recruitment placement and retention of volunteers, *Nonprofit Management & Leadership*, 2(4), 333-350.
- Creswell, J. W. (2002). *Educational research: Planning, conducting, evaluat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NJ: Merrill Prentice Hall.
- Marshall, C., & Rossman, G. B. (1995). *Designing qualitative research*. London: Sage.
- Mason, J. (1996). 질적 연구방법론, 김두섭 역(2002), 서울: 나남출판.
- Neck, C. P., & Houghton, J. D. (2006). Two decades of self leadership theory and research past development, present trends and future possibilities,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1(4), 270-295.
- Neck, C. P., Stewart, G. L., & Manz, C. C. (1995). Thought self leadership as a framework for enhancing the performance of appraisals,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31(3), 278-302.
- Willis, P. (2004). 학교와 계급 재생산 - 반학교문화, 일상, 저항, 김찬호·김영훈 역. 서울: 이매진.

ABSTRACT

Exploration Youth Related Volunteer Experiences of Prospective youth guidance

Cho Balkeuni*·Lyu Jeonghee**·Kim Eunj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atterns of preliminary youth leaders in their youth-related service activities. To this e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3 college students, and their types of service activities were explored through their lively voices and experiences. Prospective youth leaders showed the following types of youth volunteering activities. First, self-leadership. Prospective youth leaders planned, conducted, operated, and evaluated the program through volunteer activities, and through this achievement experience, they organize clubs with other college students, participate actively in other activities, set goals and motivate them. Second, it was an opportunity to build relationships. Prospective youth leaders started volunteering with the recommendation of professors and institutional managers, and continued volunteering by maintaining relationships with senior juniors and colleagues. Third, it was an opportunity to explore and decide on career. For prospective youth leaders, volunteering was not just a service but an opportunity to explore careers and find their aptitudes as youth leaders. Most of the participants were able to learn what youth affairs were doing through volunteering opportunities and find their aptitudes. Fourth, the college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study “penetration” what the youth director's work was and experience the “limitation” of the work through

* First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Mokpo Catholic University, vincentcho@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Youth Counseling and Life Education, Gwangju University, teodosia@naver.com

*** Co-Author: Research Associate,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Expenditure,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9537768@naver.com

volunteer work. Prospective youth leaders have come to understand the limitations of seeing the reality of youth leaders who have not learned in college and recognizing the limitations of their work. Fifth, despit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system, research participants were able to gain hands-on experience through volunteer activities. This experience gave them the opportunity to know the importance of field practice and to understand the culture and psychology of youth.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training process of universities or institutions that train youth leaders and suggests the need for follow-up studies.

Keyword : preliminary youth leader, youth related service, youth activity, field experience, major related activity

투고일 : 2019. 11. 12. 심사일 : 2019. 12. 18. 게재확정일 : 2019. 12. 26.